인도 마하보디사원 세계문화유산 지정

불교유적지 중 네번째…빠르면 주중 발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Buddhagaya)의 마하보디(Mahabodhi)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인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하보디 사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인도에서 열일곱 번째, 인도 내의 불교 유적지 중에서는 아잔타와 엘로라(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석굴을 모두 포함) 석굴군과 산치의 대탑에 이은 네 번째가 된다.

부다가야에 처음으로 불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중엽 아쇼카 대왕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뒤를 이은 슝가왕조 시대에 모두 파괴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석주와 석좌(石座) 뿐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4~5세기 경 굽타 시대에 파괴된 사원을 복구, 증축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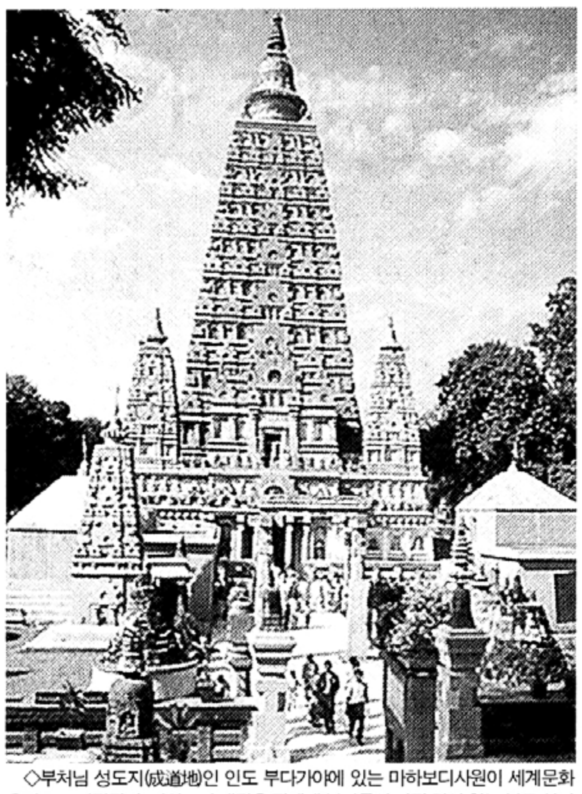
7세기 초 인도를 방문했던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부다가야 사원에 대한 묘사는 그 규모와 장식까지도 1880년 보수되기 전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사원의 구조와 장식은 단순한 편인데, 조성 당시 동부 인도에 크게 유행하던 건축 스타일을 그대로 살린 것이며, 그때의 건축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다.

1833년 이슬람의 침략으로 황폐화 된 사원을 버마 대사가 방문하여 빨리어 명문을 발견했다. 이렇게 시작된 버마의 관심은 1874년 버마 왕이 인도 정부에 특사를 파견하여 부다가야의 보리수를 보살필 두 명의 관리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허가를 받았다. 다음 해인 1875년 버마 외무장관은 인도 총독에게 부다가야 사원의 보수를 제안하여 1880년부터 81년에 걸쳐 대대적인 사원의 보수가 이루어졌다. 이 때도 가능한 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원의 보수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고,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은 보존상태가 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인도에서도 뜻있는 불자들이 우려하던 불교 문화재 중 하나였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특별 보존, 관리 지도를 받게 되어 보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 수입이 사원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게 된다면, 불교 성지의 유서깊은 문화재가 좀 더 잘 보존, 관리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불교학자인 아히르(D.C. Ahir) 박사는 밝혔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부처님 성도지(成道地)인 인도 부다가야에 있는 마하보디사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마하보디 대탑은 전세계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불교 성지 중의 하나다.

中 116세 두품화 보살 세계 최장수 노인

불자…성 안내고 채소 즐겨 먹어

중국 사천성(四川省) 낙산시(樂山市) 오통교(五通橋) 구위원회 소명무(蕭明武) 부서기는 6월 19일 세계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인' 증서를 116세의 두품화(杜品華) 보살에게 전달했다. 이 보살은 3 세기를 사천에서 산 노인으로 세계 최장수 인정을 받았다.

1886년 4월 22일 사천 낙산에서 태어난 두품화 보살은 116세의 고령이지만, 아직 사유가 민첩하고, 말에 풍취(風趣)가 있으며, 귀도 잘 들린다.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손에 특별한 힘이 느껴질 정도로 건강해 지금도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한다.

노 보살이 사는 낙산시 오통교는 휘산과 진산 구역내에 있다. 이 곳은 산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공기가 매우 청정하다. 그녀의 집은 냇물 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민가이며, 앞쪽에는 논이, 사방에는 작은 산이 위치해 수목이 무성한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웃에 사는 85세의 주순덕(周順德) 할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 할머니는 40세였는데, 그때부터 그녀는 불교를 믿고 매일 채소를 먹었으며, 사람들을 좋아하고 화를 내지 않았으며, 매일 웃었다"고 말했다.

중국 五代 마애석각불경 발견

불정존승다라인경 서문 침식불구 글자 선명

중국 정부는 6월 23일 고고학자들이 산서성(山西省) 신강현(新絳縣)에서 오대(五代)시기의 진귀한 마애석각(磨崖石刻) 불경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석각은 신강현 장상촌(張上村) 태음사(太陰寺)에서 남쪽으로 약 5km 지점에 있는 동화산(東華山) 태음사애(太陰寺崖) 위에서 발견됐으며, 〈불정존승다라인경(佛頂尊勝陀羅仁經)〉 제 1권의 서문 1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석경의 서문에는 "불정존승다라인경은 브라만 승려 붓다보리(佛陀波利)가 의봉(儀鳳) 원년(당 고종, 676년) 인도로부터 이곳 오대산으로 가져왔다"고 기록돼 있다.

경문은 모두 2천여자의 해서(楷書)로 기록되어 있으며, 매 글자의 크기는 1.5 ㎠ 정도로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경문 뒤에는 '대진천복(大晉天福) 3년(938년)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 석경이 오대 진나라 시기의 작품이며, 당시 태음사 스님들이 글자를 새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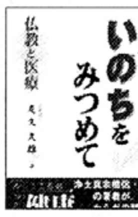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최대 비취관음상 중국, 내년 초 봉안

세계 최대의 비취옥 관음상으로 조성될 무게 8톤의 비취원석이 3일 광동성(廣東省) 심천(深圳) 해상전원 풍경구로 옮겨져, 내년 춘절(春節, 음력 1월1일) 봉안될 예정이다.

이 관음상의 원석은 미얀마에서 채굴해 온 것으로 당시의 중량은 18톤에 달했다. 1999년 북경으로 운반된 후, 그 중의 한 부분이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심양 비취대불'로 조성됐다. 나머지 부분으로 이뤄진 이 8톤의 옥석은 앞으로 4m 높이의 남해관음상으로 조성돼 '북쪽의 대불, 남쪽의 관음'의 국면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불서



• '불교와 의료': 〈찬란한 생명을 응시하는 불교와 의료〉는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스님이자 의학박사인 저자 토모쿠쿠유(友久久雄)가 마음과 몸의 건강에 대해 말한 책. 제1장 '감사하는 생활 방식'에서는 선량한 마음과 행위, 올바른 생사관,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고찰하고 있다. 제 2장 '마음 다스리기'에서는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들과 방황하는 사춘기 학생들을 위한 카운셀링과 마음 엿보기를 다루었다. 제3장 '몸의 건강'에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따른 병 다스리기, 노인과 건강생활 등을 조명했다. 제4장 '찬란한 생명'에서는 찬란한 생명 응시하기, 임종간호의 실천과 과제 등을 다루었다. 교토, 본원사(本願寺) 출판사 펴냄.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9. <화엄경>의 지리인식

〈화엄경〉과 〈법화경〉과 같은 불멸의 대승경전들은 아직도 현대인들의 사고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마술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그 구성이나 내용은 매우 장대하여 어느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가 생성되고 전해진 아시아의 모든 지역문화를 포괄한다. 즉 대승불전의 공간인식과 표현에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다시간, 다공간 불국토의 존재를 상징하는 사방, 시방의 공간적 광대함은 이 경전들이 재편집된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공간적 스케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종의 초월적 지리학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대승불전의 공간인식 즉 동서남북의 사방에 불세계가 존재하고 특유의 방편과 장엄을 구족한 불세계가 있다는 묘사는 당시의 현실적인 지리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화엄경〉의 원래 명칭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다. 이 경전의 범어 제목은 "마하 바이플야 붓다간다뷰하 수트라(Mahavaipulya buddha-gandvyuha-sutra)" 또는 "붓다 아바탐사카 나마 마하바이플야 수트라(Buddhavatamsaka-nama-mahavaiplya-sutra)"라고 한다. 여기서의 'avata-msaka'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꽃을 묶어서 엮은 꽃다발 장식'을 의미한다.

남인도 · 중앙아시아 · 중국 심지어 한국 금강산 위치까지 전 지구적 화엄세계 서술

〈화엄경〉의 성립 시기는 B.C. 1, 2세기경 시작된 대승불교의 발흥과 함께 남부인도에서 〈십지품〉과 〈입법계품〉의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되어 중앙아시아의 코탄(Khotan)에서 광본(廣本)으로 편찬, 집성된 경전이다.

현재 한역 〈화엄경〉에는 80권본 화엄경, 60권본 화엄경, 40권본 화엄경과 같은 3종의 한역과 1종의 티베트어역이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진 화엄경은 80권본 화엄경이다. 화엄경의 여러 판본은 모두 상상의 공간이나 지리적 위치가 아닌 남인도에서 중앙아시아, 중국, 심지어는 한국 동해안의 금강산의 실재적인 위치를 포괄하여 전지구적인 화엄의 세계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입법계품〉에 자주 등장하는 '사가라(sa?ara)'라는 용어는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의 '바다'를 의미한다. 저 인도네시아의 중부 자바에 위용을 남기고 있는 보로드부르사원이 화엄경의 이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화엄사상이 중앙아시아의 코탄을 거쳐 중국과 신라로 북동진할 때 또 한 가닥의 화엄사상은 저 인도양의 자바로 남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화엄경은 성립과 유통면에서 동양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 저 인도양의 해양문화와 인도, 중앙아시아을 포괄하는 대륙문화의 장대한 집대성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화엄경〉 〈보살주처품〉에서는 코탄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중국의 여러 불교 거점들이 지명화(地名化)되어 많이 열거된다. 때문에 화엄경이 실크로드 남도의 코탄에서 최종적으로 편찬, 성립되었다는 설이 확정적이며 60화엄은 지법령(支法領)이 코탄에서 취경(取經)하였으며 80화엄 또한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코탄에서 가져와 번역하였다. 4세기말에서 5세기 중엽까지 인도의 불적을 순례한 중국의 법현(法顯)은 이미 그의 여행기 〈불국기〉에서 당시 코탄에는 코마티이라는 대승의 사원이 있었으며 3천명의 승려들이 대승불학을 공부하며 엄숙한 수행을 쌓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까지 코탄부근에서 화엄경과 법화경 대승경전의 사본이 출토되는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역 화엄경의 서지적, 사상적, 예술적 기원은 코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1년 5월 필자는 〈화엄경〉의 고향, 실크로드의 모래바람과 더위를 뚫고 코탄에 갔었다. 우루무치에서 3박4일간 버스를 타고 찾아간 코탄은 현재 허텐(和田)이라고 이름도 바뀌었으며 융단과 바자르, 이슬람 사원만이 흘러간 역사의 물결을 남기고 있을 뿐 불교의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황량한 사막의 거리였다. 코탄의 거리에 선 나는 이 덧없는 몽환 또한 화엄이라고 여기며 깊은 신비와 슬픔을 맛보았다.

▒ 경학회 회주

제 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학인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직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명 (수시모집)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011)849-0961
회　장 011)864-1518
총　무 017)563-3062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